



정부, 가변형 축사표준설계도 보급

-농장 부지에 맞춰 표준돈사 시공 가능-

정부는 국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 인구의 감소에 따른 축산노동력 절감과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92년도에 보급한 축사표준설계도(건설부 공고 제1992-172호, 공고일: 1992. 12. 5) 중 비육돈사의 7종을 선정하여 양축농가의 다양한 크기의 표준설계도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가변형 축사표준설계도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이 가변형 축사표준설계도는 부지 및 양축가의 희망 사육두수 등 여러가지 변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 기본단위별로 건물의 길이를 바꿀 수 있는(건물의 폭은 바꿀 수 없다) 가변형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건축 기본단위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고정부문과 가변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축사별 건축 기본단위는 설계도면의 설계개요에 자세히 표현했다.

양돈업 전업화 현상

-작년 12월 호당 사육두수 84.7두

UR타결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돼지, 비육우, 젖소 등 주유가축의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

◇ 가변형 축사 표준설계도의 종류

◦ 1992년 설계보급분(건설부 공고제 1992-172호: '92.12.5)

구분	표준설계인정번호	사육형태	설계변경내용	가변종수	사육가능규모	가변규모(M ²)
돈 사	축사-92-70-다	비육돈사	1. 가변형 축사로 설계변경 2. 파이프 구조 추가 설계	18종	모든기준 30~100두	축사면적 385.02~859.23
	축사-92-70-라	번식돈사		15종		축사면적 331.2~667.2
	축사-92-70-마	비육돈사		15종		축사면적 380.7~972.9
분뇨처리 시설	분뇨-92-나	통 풍 식	1. 가변형 축사로 설계변경	9종	돈사면적 720~ 2160M ²	시설면적 288.6~600.6
	분뇨-92-마	교 반 식		21종		시설면적 150.48~414.48

하고 있으나 사육가구수는 감소하고 있어 축산업의 전업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지난 12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돼지 사육농가수는 7만가구로 전년에 비해 2만9천호(29.3%)가 감소하였다. 총 사육두수는 5백92만8천마리로 3개월전의 5백99만8천마리보다는 7만마리(1.2%)정도 감소하였으나, '92년의 5백46만3천마리보다는 46만5천두(8.5%)가 늘었다.

또한 모돈사육두수는 76만4천두로 1년전의 72만5천두보다 3만9천두(5.4%)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구당 돼지 사육두수는 84.7두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같이 양돈업의 전업화 가속현상은 육류소비량의 증가와 판매가격의 호조에 따라 사육두수가 늘어났으나, 축산시설의 기계화 및 자동화, 축산폐수시설의 의무화 등으로 영세양축농가가 줄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국립축육원, 우량종돈 동결정액 공급 방침

-생산성 향상 및 육질개선 기대

국립축육원은 돼지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돼지의 생산성 제고와 육질개선을 위하여 우량종돈의 동결정액을 본격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국립축육원은 '8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돼지 동결정액 제조공급」에 대한 시험연구사업 성과를 기초로 올해부터 공급능력과 농가에서의 수용능력이 허용하는 한 동결정액 공급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종모돈(種牡豚)의 사육비가 절감되며, 또한 우량유전자의 손쉬운 도입으로 생산성과 육질의 개선으로 수입 돼지고기와의 가격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축육원은 동결정액 공급능력제고를 위해 지난해 영국에서 생산능력과 육질이 우수한 종돈 19마리를 도입하였으며, 돼지 육종개량의 권위자를 초청,

도입종돈의 능력을 평가한 결과 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허가축사 구제 절반 수준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정부의 무허가축사 구제가 신청축사중 절반 가량만이 구제를 받아 양축가들의 의욕마저 저하시키고 있어 이에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2년 9월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 발표와 함께 구제신청을 받은 결과 8만7천여 농가에서 16만8천동을 접수하였지만, 이중 절반만이 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축가들은 정부의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로 시설개선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이처럼 추인부진으로 의욕만 저하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같은 무허가축사 구제가 부진한 이유를 확실적인 규제때문으로 보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적극 양성화 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축농가들은 “구제신청축사의 절반 가량만이 추인을 받다 보니 오히려 신청을 안할 것을 잘못했다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년 배합사료 1,345만톤 생산 계획

-지난해보다 2.3% 증가

농림수산부는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계획량을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1천3백45만톤으로 확정,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배합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옥수수 5백33만톤, 대두 1백만톤, 타피오카 70만톤 등 총 7백3만톤의 배합사료 원료를 수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배합사료 생산량을 소폭 늘려 책정한 것은 가임암소의 증가에 따른 소 사육두수가 7% 정도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금년도 사료시책축진 기본방향으로 ▲배합사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배합사료 원료의 안정적수급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정하고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 돼지고기 수출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돼지고기의 수출축진을 위해 수출단지의 지정, 수출업체의 육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림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돼지고기 수출목표는 '97년 3만톤(1억6천만달러), 2003년에 10만톤(5억5천만달러)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방향은 ▲수출단지를 지정하여 품질이 균일화된 수출규격돈 생산체제 확립 ▲돼지고기 수출업체 육성으로 수출의욕 고취 ▲돼지고기수출 전문도축·가공시설 및 식육기술훈련원 설치로 도축이후의 처리과정에서의 돼지고기 품질 향상 ▲대일 수출시장개척 활동 적극 추진 및 돼지고기수출 유공자 포상 실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다 <세부내용 본지 58쪽 참고>.

제1종 가축전염병 대상질병 추가

농림수산부는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개방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정한 A급질병과 전파력이나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1종가축전염병은 제2종가축전염병보다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종전염병중 피해가 적은 질병은 제2종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휴대검역물에 대한 검역결과 불합격시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관은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도 일정기간내에 수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게 된다.

아울러 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외의 전염성 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수출입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립동물검역소장은 동물수입시 계류능력을 감안하여 수입시기 및 수입물량 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개정된지 장기간이 경과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의 보완이 요구돼 왔다.

돼지 품종별 개량목표치 설정·고시

-듀록 2001년 일당증체량 1,000g 목표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농장검정업무를 본회로 일원화하고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돼지고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성장 및 번식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92년도부터 5년간격으로 2001년까지 종돈과 비육돈의 개량목표를 설정,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돼지개량 목표는 종돈과 비육돈으로 구분하였으며, 종돈은 산육능력과 번식능력을 품종별로 설정했다. 산육능력은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를, 번식능력은 산자수와 이유두수를 개량해 나가도록 했다. 비육돈은 모돈두당 연간 출하두수, 출하체중, 등지방두께를 개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돼지 개량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능력검정(산육 및 산자)의 활성화로 우량종돈을 선발하고 인공수정(AI) 등 신기술 이용으로 우량종돈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조기이유 기술의 개발·보급으로 모돈 회전율을 증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내용 본지 48쪽 참고> 